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February 2025 Issue | Vol.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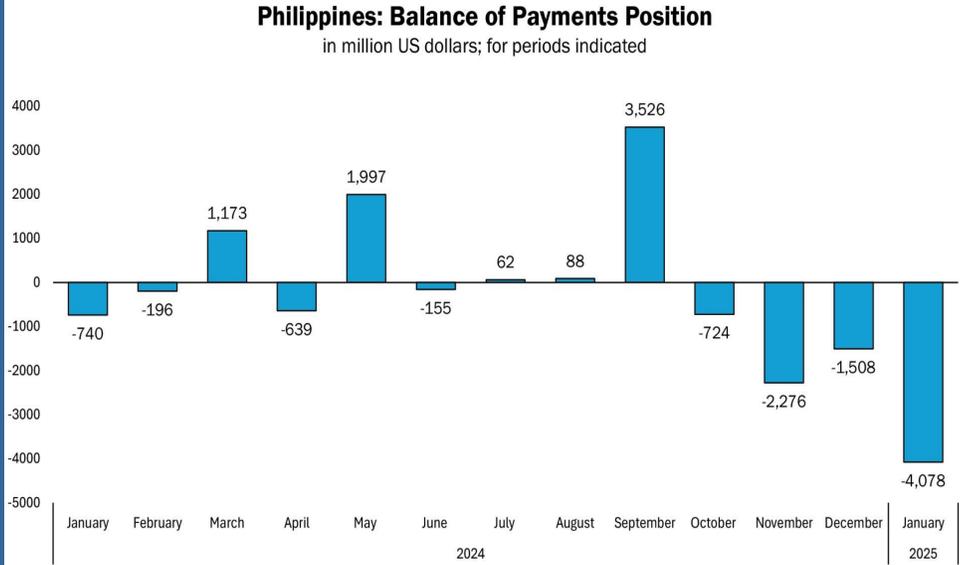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1월 지급수지 적자 전년 대비 확대... 11년 만에 최대 규모인 41억 달러 —page 1-2
- Pre-CREATE 이전 기업, 더 긴 일몰 조항 혜택 —page 2-3
- FATF 그레이리스트 탈출, 필리핀에 호재: 외국인 투자 증가·국경 간 결제 원활·신용 등급 상승 —page 3-4
- 한국, 트럼프 관세 면제 추진 —page 5
- 수출업체 대상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 규정, 내달 발표 —page 5-6
- 분석가들: 1분기 GDP 6.5% 성장 전망 —page 6-7

UPCOMING EVENT

- [April 03, 2025] KCCP's 30th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page 7

필리핀 1월 지급수지 적자 전년 대비 확대... 11년 만에 최대 규모인 41억 달러
February 21, 2025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Source: BSP

필리핀의 국제수지(BOP) 적자는 2025년 1월 기준 41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억4천만 달러 적자에서 확대됐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어제 밝혔다.

국제수지(BOP) 적자는 11년 만에 최대 규모로, 2014년 1월 44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그러나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올해 말까지 BOP가 21억 달러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성명을 통해, 1월 적자는 BSP의 순 외환 운영과 국가 정부가 외채 상환을 위해 BSP에 보유한 외화 예금을 인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BOP는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와 세계 다른 국가 간의 경제 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다.

레몰로나 총재는 또한 필리핀의 총국제준비금(GIR) 감소가 지급수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기준 GIR은 1,033억 달러로, 2024년 말의 1,063억 달러에서 감소했다.

그러나 그는 최신 GIR 수준이 7.3개월 분량의 상품 수입 및 서비스 대금 지급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외부 유동성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신 GIR 수준은 수출 수익이나 해외 차입이 전혀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수입 대금 및 부채 상환과 같은 국제수지 자금 조달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외환 가용성을 보장합니다."라고 레몰로나 총재는 말했다.

또한, GIR은 단기 외채(잔존 만기 기준)의 약 3.7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BSP는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도 지급수지의 회복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간 흑자 전망

BSP의 2025년 1월 3일 기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체 BOP는 21억 달러 흑자(국내총생산(GDP)의 0.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예상치인 17억 달러 흑자보다 개선된 수치다. [Cont. page 2]

필리핀 1월 지급수지 적자 전년 대비 확대... 11년 만에 최대 규모인 41억 달러

[Cont. from page 1]

레몰로나 총재는 이번 전망이 안정적이지만 완만한 글로벌 및 국내 경제 성장 전망, 각국에서 둔화되는 인플레이션 추세, 지속되는 지정학적 및 기후 충격,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무역 및 투자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자금 유입

RCBC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는 "2025년 1월 말 국가 정부가 추가로 조달한 33억 달러 규모의 외국 상업 차입으로 인해 향후 몇 달간 BOP와 GIR 데이터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BOP 및 GIR 데이터의 개선은 특히 투기적 공격에 대비해 페소 환율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의 대외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카포트는 또한 "필리핀 경제는 여전히 역내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CREATE MORE 법안, 공공서비스법(PSA) 개정, 소매무역자유화법 개정, 외국인투자법 개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100% 외국인 소유 허용 등과 같은 개혁 조치가 외국인 투자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BDO 유니뱅크의 수석 시장 전략가 조나단 라벨라스는 1월 BOP 적자가 예상된 일이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Viber 메시지를 통해 "해외 부채 상환 및 기타 의무 이행과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연초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번 적자의 규모는 이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큰 폭의 적자는 상당한 외화 유출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외환보유액에 부담을 주고 필리핀 페소의 추가 약세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라벨라스는 페소 환율 변동 속에서 국가 정부의 외채 상환 및 외환 운영과 같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적자의 영향은 정부가 외채 관리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리고 송금,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수익 등 구조적인 미 달러 유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jan-payments-deficit-widens-yr-on-yr-to-4-1b-biggest-in-11-yrs/](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jan-payments-deficit-widens-yr-on-yr-to-4-1b-biggest-in-11-yrs/)

Pre-CREATE 이전 기업, 더 긴 일몰 조항 혜택

February 21, 2025 | Ian Nicolas P. Cigaral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CREATE 법 시행 이전에 세제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은 2034년까지 이러한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개편된 인센티브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되었다.

이는 **기업 회복 및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 활성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법**(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to Maximize Opportunities for Reinvigorating the Economy), 즉 **CREATE MORE 법**(공화국법 제12066호, RA 12066)의 시행 규칙(IRR)에 명시되었다.

CREATE MORE 법은 두테르테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공화국법 제11534호(CREATE 법)*을 개정한 것으로, 기업 세율을 인하하고 과도한 것으로 간주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주 공개된 시행 규칙(IRR)에 따르면, 2021년 CREATE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소득세 면제(Income Tax Holiday, ITH)** 및 **5% 총소득세(Gross Income Tax, GIT)** 혜택을 받고 있던 프로젝트나 활동은 203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CREATE 법 시행 이전에 GIT 혜택을 받은 등록 기업들도 2034년 말까지 동일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이러한 CREATE 이전 기업들이 해당 세제 혜택을 2031년 4월까지만 유지할 수 있었다. [Cont. page 3]

Pre-CREATE 이전 기업, 더 긴 일몰 조항 혜택

[Cont. from page 2]

재무부 장관 랄프 렉토(Ralph Recto)는 “정부는 CREATE MORE를 단순히 투자를 유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며, 투자자들이 필리핀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제공하는 ‘자석’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더 긴 일몰 조항 외에도, CREATE MORE 법의 시행 규칙(IRR)은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인증서* 발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인증서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자격 요건 및 준수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또한, 새로운 법은 *재정 인센티브 심의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FIRB)*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영향을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센티브 제공이 비용보다 더 큰 혜택을 창출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가적으로, IRR은 프로젝트의 *이중 등록(Double Registration)*을 금지하여 중복적인 인센티브 지급을 방지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재정 관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07478/pre-create-firms-to-enjoy-longer-sunset-provision>

FATF 그레이리스트 탈출, 필리핀에 호재: 외국인 투자 증가·국경 간 결제 원활·신용 등급 상승

February 22, 2025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금융행동태스크포스(FATF)*의 그레이리스트에서 필리핀이 제외된 후,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증가, 국경 간 결제의 *다리스킹(de-risking)* 해소, 그리고 신용등급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재무부 장관 랄프 G. 렉토(Ralph G. Recto)는 토요일, 필리핀의 그레이리스트 탈출이 *신용등급 상승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우수한 금융 관리 인증(seal of good housekeeping)'과 같다"며,

"이는 해외에서 송금하는 필리핀 노동자들, 기업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 수준의 금융 거버넌스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무역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경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리에 본부를 둔 글로벌 금융 감시 기관인 FATF는 금요일, 필리핀이 약 4년 만에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국 명단(그레이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링크](#))

회색 명단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융 방지 체제에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들을 식별하지만,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FATF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을 포함합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더욱 강력한 원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도 부합합니다."라고 필리핀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 의장이자 필리핀 중앙은행(BSP) 총재인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Eli M. Remolona Jr.)가 말했습니다.

AMLC는 성명을 통해 필리핀이 회색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가 더욱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규제 준수 장벽이 낮아지고 금융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필리핀을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더욱 매력적인 국가로 강화하며, 특히 해외 근로자(OFW)를 비롯한 필리핀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AMLC는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4]



FATF 그레이리스트 탈출, 필리핀에 호재: 외국인 투자 증가·국경 간 결제 원활·신용 등급 상승

[Cont. from page 3]

리잘 커머셜 बैं킹 코퍼레이션(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Michael L. Ricafort)는 필리핀이 회색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시장 심리가 개선되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최근 시장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긍정적인 소식 중 하나이며,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에 부담을 주었던 '트럼프 프리미엄/요인'을 고려할 때 더욱 환영할 만한 발전입니다."라고 리카포트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필리핀의 회색 명단 탈출이 국가 거버넌스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며, 특히 2024년 말까지 필리핀 역외 게임 운영(POGO) 금지와 최근 몇 년간 시행된 기타 시정 조치들을 감안할 때 더욱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FATF Plenary at OECD Headquarters in Paris, February 16-21, 2020 (Photo by Hervé Cortinat / OECD)

Pagcor: 지속적인 게임 산업 개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장 엘리사 데 안다 마드라조(Elisa de Anda Madrazo)는 필리핀이 이제 자국 내 카지노를 통한 불법 자금 유입 위험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외 게임 운영업체(POGO) 폐쇄 이후 카지노 정킷(junket)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오락 및 게임 공사(Pagcor) 회장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알레한드로 H. 텡코(Alejandro H. Tengco)는 국가 게임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국내 게임 산업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agcor의 자금세탁방지(AML) 노력은 주로 **Pagcor 자금세탁방지 감독 및 집행부(Pased)** 및 ****자금세탁방지 준수부(ACD)****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 지상 카지노 및 정킷 운영업체를 포함한 필리핀 게임 산업 전체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텡코 회장은 밝혔으며, 또한 모든 라이선스 보유업체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디리스크링 없음'

산토 토마스 대학교(UST) 사회과학 및 교육 연구센터(RCSSED) 소장인 제레미야 M. 오피니아노(Jeremiah M. Opiniano)에 따르면, 필리핀의 FATF 그레이리스트 제외는 외국 금융기관이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한 국경 간 결제 서비스 및 해외 송금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피니아노 소장은 이전에 금융기관들이 '디리스크링(de-risking)'이라 불리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리스크링이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및 기타 범죄에 대한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고객과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필리핀 송금인들이 송금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필리핀으로 돈을 보내는 수수료도 더 저렴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오피니아노 소장은 *BusinessMirror*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오피니아노 소장은 국제이주개발연구소(IMDI) 사무총장이기도 하며, 필리핀이 그레이리스트에 등재된 기간 동안에도 매년 사상 최고 수준의 해외 송금을 기록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은행을 통한 현금 송금액은 344억 9천만 달러로, 2023년 기록한 334억 9천만 달러보다 3% 증가했습니다.

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ATF 회장 엘리사 데 안다 마드라조(Elisa de Anda Madrazo)는 향후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해 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ATF에 따르면, 필리핀은 향후 테러자금조달(CFT) 조치를 더욱 정교화하여 테러자금조달(TF) 사례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기소하는 한편, 합법적인 비영리 단체(NPO) 활동이 불필요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렉토: 다음은 신용등급 상황

재무부 장관 랄프 렉토(Ralph Recto)는 필리핀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그레이리스트에서 성공적으로 제외된 것이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 하에서 신용등급 상황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렉토 장관은 필리핀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 투명성과 무결성을 강화하는 모범 국가이자 지역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의 중대한 성과입니다. 이는 우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우수 관리 인증(seal of good housekeeping)'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모든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렉토 장관은 말했습니다.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의 FATF 그레이리스트 제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2023년 행정명령 제33호(Executive Order No. 33)를 발령하여 글로벌 금융 기준 준수를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Image credits: [Hervé Cortinat / OECD](#)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2/22/boon-to-phl-with-fatf-grey-list-exit-more-fdi-easier-cross-border-payments-credit-upgrade/>

한국, 트럼프 관세 면제 추진

February 21, 2025 | BusinessWorld

서울 -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의 보복성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대표단을 이끈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워싱턴을 방문한 첫 주요 한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대부분의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음을 강조하며 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계적인 주요 수출국이자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점점 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종원 차관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의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추가 협력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의회 의원들과 만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성명을 통해 "향후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및 무역 조치에 대해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한민국 권한대행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이 지난 2년간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요일, 최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취하는 대응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일본은 미국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요청한 반면,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EU는 이번 주 무역 협상 및 관세 인하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의 경제학자들은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 경제 목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면제를 요구할 강력한 입장에 있다"며, 한국이 2023년 미국 내에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트럼프 행정부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일시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촉발된 정치적 위기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요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개 한국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정책 결정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world/2025/02/21/654798/south-korea-seeks-exemption-from-trump-tariffs/>

수출업체 대상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 규정, 내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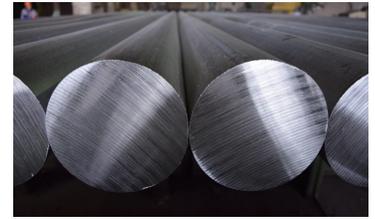
February 24, 2025 | Alden M. Monzon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INQUIRER.NET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산하 수출마케팅국(EMB)은 국내 수출업체들이 부가가치세(VAT) 면제 및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를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는 3월 하반기까지 관련 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인증 절차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비앙카 시킴테 (Bianca Sykimte) EMB 국장은 Inquirer에 보낸 메시지에서 밝혔다.

수요일, EMB는 '기업 회복 및 조세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 활성화법(CREATE MORE Act)'의 시행령이 서명된 후 공청회를 개최했다. [Cont. page 6]



STOCK PHOTO | Image by Russian Aluminium Association from Pixabay

수출업체 대상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 규정, 내달 발표

[Cont. from page 5]

수출마케팅국(EMB)이 마련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수출 지향 기업은 필리핀 국세청(BIR)에 부가가치세(VAT) 등록을 해야 한다.

이들 기업의 수출 매출은 직전 과세 연도의 총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재화 또는 서비스는 반드시 수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수출 지향 기업이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도 부가가치세 영세율(VAT zero-rated)이 적용됩니다.”라고 비앙카 시킴테 EMB 국장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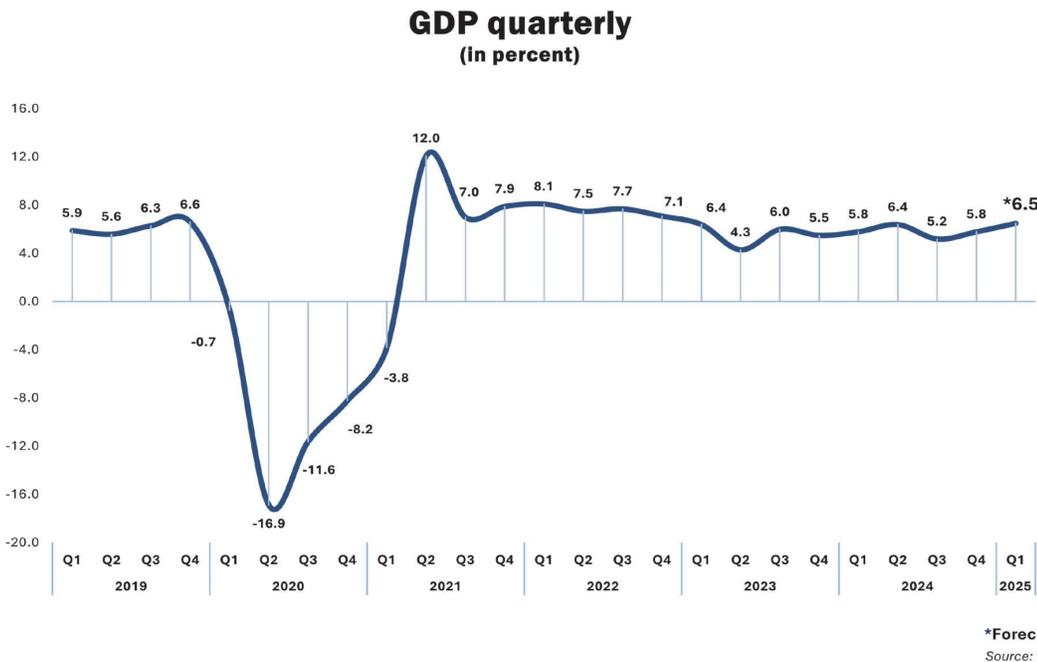
또한, 수출 지향 기업의 구매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공급업체는 "VAT zero-rated" 문구가 기재된 정식 등록된 VAT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수출 지향 기업은 국내에서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VAT 영세율을 적용받고, EMB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근거로 VAT 면세 수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필리핀 국세청(BIR)의 사후 감사(post-audit investigation)를 거쳐 해당 재화 및 서비스 또는 수입이 수출 지향 기업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07979/rules-on-vat-exemption-zero-rating-for-exporters-out-next-month>

분석가들: 1분기 GDP 6.5% 성장 전망

February 24, 2025 | Angela Celis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경제는 2025년 1분기에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시아태평양대학교(UA&P)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UA&P가 일요일 발표한 2월호 *마켓 콜 자본시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의 낮은 기준(base effect), 선거 관련 지출 증가, 완화된 인플레이션 등이 2025년 1분기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GDP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같은 기간의 5.8%보다 빠른 속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예상 성장률은 2025년 연간 성장률 6.3% 달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의 2025년 성장 목표치인 6~8% 범위 내에 속한다.

지나해 필리핀 경제는 5.6% 성장했다.

UA&P 수석 이코노미스트 빅터 아볼라(Victor Abola)와 연구원 마르코 안토니오 아고니아(Marco Antonio Agonia)가 작성한 *마켓 콜* 보고서는 “서비스 부문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지만, 산업 부문의 건설업이 세부 부문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1분기 총 고용 인구가 사상 최고치인 5,0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중 4,93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더 빠른 국내총생산(GDP) 성장세가 국가 부채 비율을 60%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7]

분석가들: 1분기 GDP 6.5% 성장 전망*[Cont. from page 6]*

보고서는 "2025년 첫 두 달 동안 폐소화가 안정세를 보였으나, 미국 달러화의 강세 유지와 필리핀 무역적자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폐소화는 점진적인 평가절하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주요한 긍정적인 경제 및 정치적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필리핀증권거래소 지수(PSEi)는 1분기 내내 6,000~6,500포인트 범위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해당 분기의 양호한 기업 실적, 5월 발표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그리고 선거 결과 등이 추가적인 시장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여 2분기에는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gdp-expected-to-grow-6-5-in-q1-analysts/>

UPCOMING EVENT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KCCP), Inc.

30TH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April 3, 2025 (Thursday) 05:00pm
Orchard A & B, 5F Ascott Hotel BGC

R.S.V.P.
Ms. Chi | Ms. Sang

(02) 8885-7342
info@kccp.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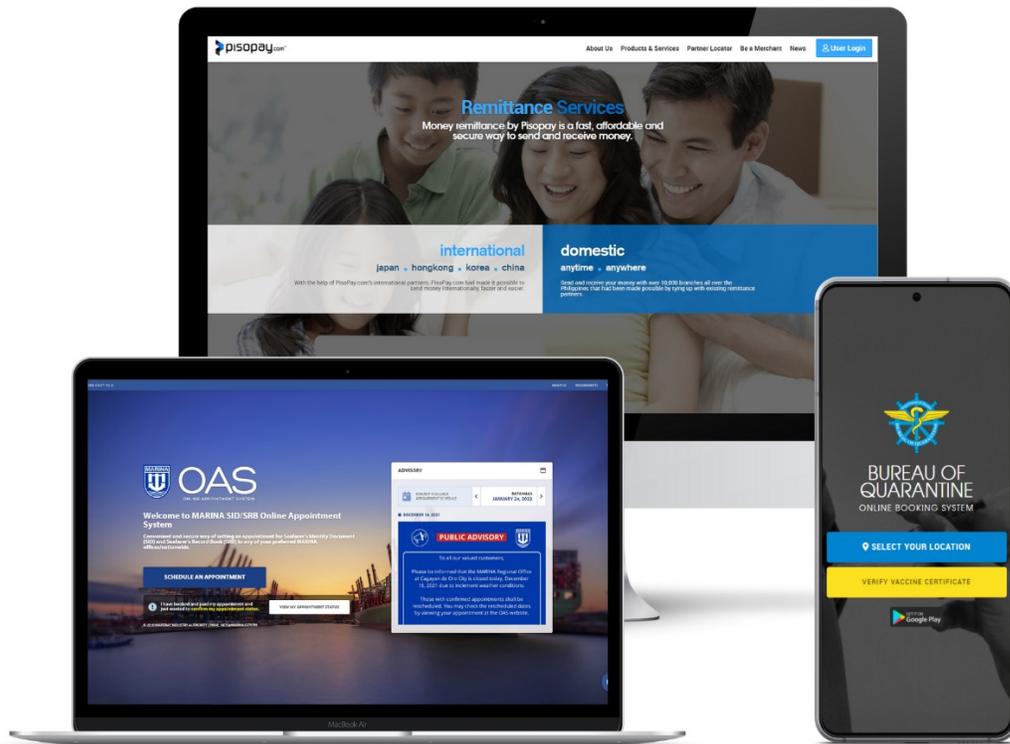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